

도, 긴급 수출물류비 지원

중기 애로 해소 위해... 오늘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러 우크라 침공 피해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등도 지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글로벌 물류난에 따른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0일부터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해상·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도는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했고,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수출물류비를 70%한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게는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반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기 위해 발생한 국제운송비 컨테이너 보관 지체료 등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체 또는 수출 유통업체이며, 수출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중소기업확인증, 수출신고필증, 국제운송서류, 운송 관련 거래내역서 등의 필수서류를 구비한 후,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www.jexpor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물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www.jexport.or.kr)의 사업공고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11-2164)이나 전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644-7155)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전북농협은 9일 '2022년 상반기 디지털 마케팅 최우수 농협'으로 선정된 용진농협을 방문해 '전북 쌀' 시상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디지털 마케팅 최우수'

용진농협, 전북농협으로부터 '전북 쌀' 시상품 등 전달 연간 목표 430.6% 실적, 지표대비 달성률 평균 도내 1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9일 '2022년 상반기 디지털 마케팅 최우수 농협'으로 선정된 용진농협(조합장 정원철)을 방문해 '전북 쌀' 시상품과 유공직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용진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디지털금융 5대 핵심항목에서 연간 목표의 430.8%의 실적을 거둬지며 지표 대비 달성률 평균 도내

1위에 등극하는 기업을 보였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전북농협이 최근 전자적으로 실시 중인 '전북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북 쌀 시상품이 전달됐고, 상반기 콤팩트 추진 우수직원(이세라 주임)에 대한 농협중앙회장 표창장도 함께 수여됐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난 7월부터 쌀 소비촉진을 통한 쌀 산업 기반 유지

에 일조하겠다는 의미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시상품을 '전북 쌀로 일원화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직원수가 30명 내외로 소규모 농협에 해당하는 용진농협이 상반기에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는 모든 농협인에게 큰 울림을 줄만하다"며, "하반기에도 우리 전북 쌀 시상품을 활용해 용진농협 디지털 고객기반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전북 쌀 소비 활성화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원주=이중복기자

전북은행, 추석 명절 특별운전자금 지원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추석 명절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에 따른 부족 자금 결제, 직원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서다.

지원 규모는 신규 2500억원과 만기 연장 2500억원 등 총 5000억원으로, 상업어음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이 해당한다.

대출 금리는 거래가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 이중고를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에 양질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장애인 고용 촉진 공로 '인정'

LX,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통령표창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장애인 고용 촉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LX는 인사혁신처에서 개최한 '2021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채용 연계형 장애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포용적 인사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 LX는 채용 연계형 장애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 이후 총 30명의 장애인 인재를 채용했다.

특히, 자격증 취득과 맞춤형 직무교육 수료 후 입사한 장애인 직

원들의 현업 적응에 도움을 준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채용 연계형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사 입사를 위한 필수 자격증 취득과 정과 입사 후 현장업무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체 개발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LX가 최초 도입했다.

오래리 경영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은행, 군산시에 시원 키트 100상자기탁

군산시는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9일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시원(COOL)키트 100상자(4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원(COOL)키트는 쿨매트, 선풍기, 쿨스카프 등 총 3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탁된 성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거 어르신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경진 부행장은 "취약계층 이웃들이 무더위에 건강할 여름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서부산림청 회의실서 개최 예찰·방제 추진방안 등 논의

서부지방산림청은 9일 청 회의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추진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서지역(통영, 거제) 및 광주 광산구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연접 시·군 등 경계를 통해 자연적·인위적으로 확산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섬 및 선단지에 대한 방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용역 수행계획 보고, 유관기관(나주, 함평, 장성, 통영) 의견수렴



서부지방산림청은 9일 청 회의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추진했다.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연구용역을 통해 도서지역 및 광주 광산구 일원 소나무재선

충병 피해 확산 저지 및 효과적인 방제·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